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카드 자세히 보기



### 필수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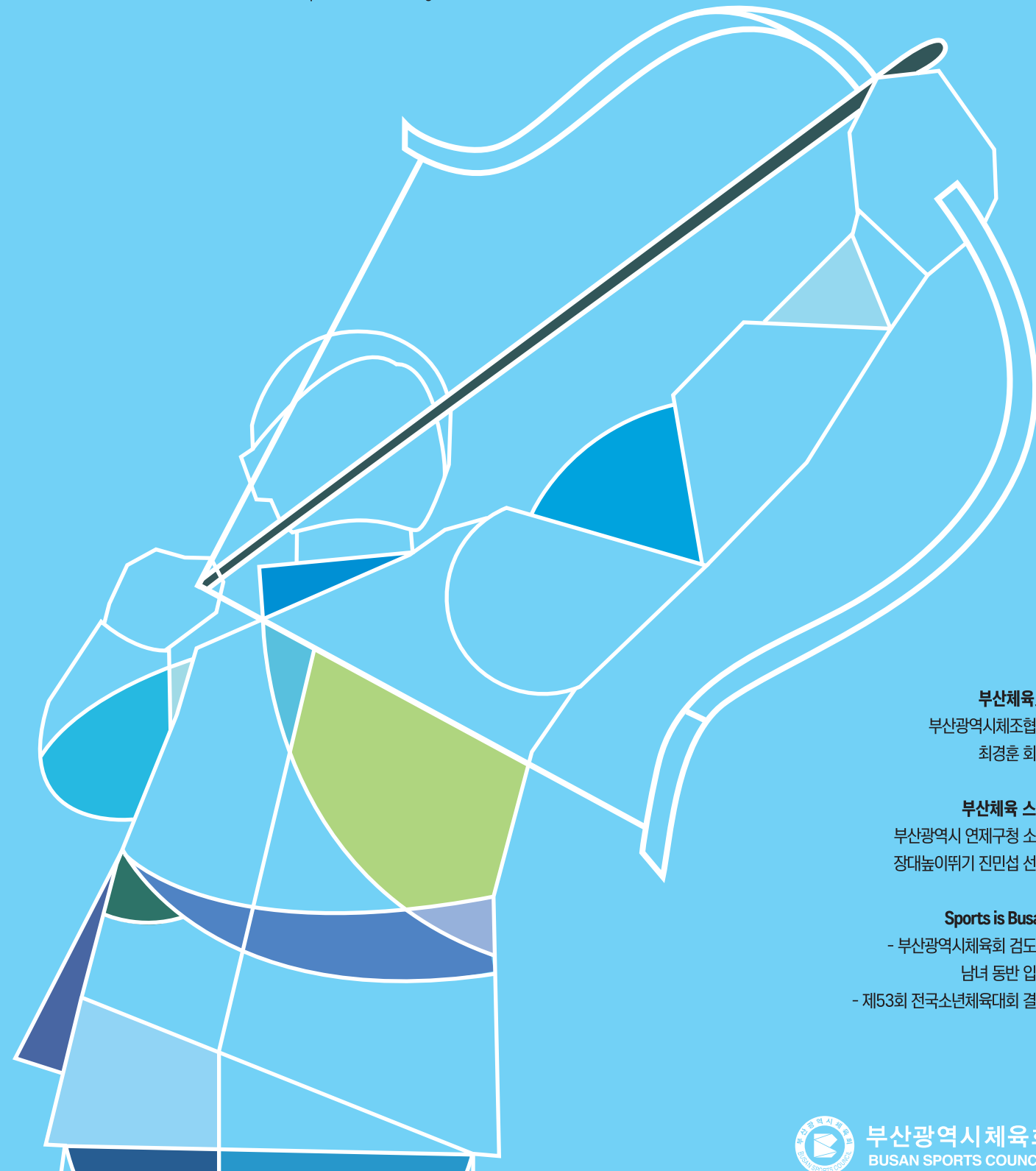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를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67**  
2024. 06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최경훈 회장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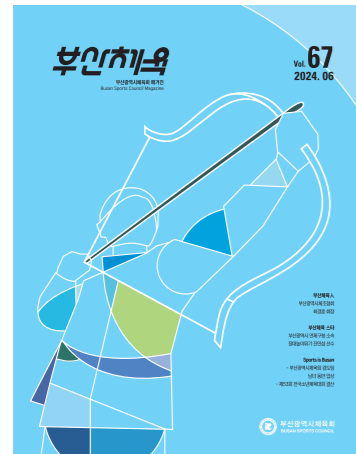
**Sports is Busan**  
-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남녀 동반 입상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06 Vol. 67



발행일 2024년 06월 17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6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B BUSAN HEROES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최경훈 회장

08  
부산체육 꿈나무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12  
부산체육 발자취  
부산 체육 수준 높인  
박학봉 전 사무처장

16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선수

### S SPORTS SERVICE

20  
Sports is Busan  
-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남녀 동반 입상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24  
스포츠 파노라마  
첨단기술과 스포츠의 만남,  
새로운 세상을 열다

28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부산실내빙상장

### G GOOD LIFE

30  
스포츠 라이프  
족구동호회 '부산중앙족구단'

34  
스포츠 기고·부산스포츠 기자단  
-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볼링대회  
-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

38  
스포츠 PLUS+  
한민족의 얼을 담은 스포츠 궁도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부산광역시체육회 최성열 이사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꿈]  
최고의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룩 그레이

### S FOR SPORTS CITY

46  
BSC 뉴스

50  
회원단체 소식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화합의 에너지로 피워낸 부산체조의 역동성

부산광역시체조협회 회장\_ 최경훈

십 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려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부산광역시  
체조협회와 함께하고 있는 최경훈 회장.  
긴 시간 동안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에 미소 짓는 최 회장의 모습에서  
부산체조협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20년을 함께한 부산체조

최경훈 회장은 2002년 이사직을 맡으면서 부산체조와 인연이 닿았다. 이후 송규정 명예회장(前 부산체조협회장)의 추천으로 2016년 부산광역시체조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당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부산체조인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화합 하였죠. 덕분에 통합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똘똘 뭉치며 결속력을 자랑 하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맡은 지도 어느덧 8년 차. 최 회장에게 ‘종목단체 회장’이란 꽤 친숙한 직책이었다고. 부 친이 부산광역시골프협회와 대한골프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는 종목 협회장이 어 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체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었다 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체조라고 하면 어린 시절 국민체조밖에 몰랐어요. (웃음) 이사직을 맡 으면서 전문체육 체조를,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체육 체조까지 알 게 되었죠. 체조에 관한 시각이 넓어질수록 체조가 얼마나 중요한 스포 츠인지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체조는 맨몸으로 난도 높은 연기를 수행하는 만큼 쉽게 범접 하기 힘든 종목으로 다가온다. 반면, 생활체육 체조는 건강체조부터 에어로빅, 댄스까지 일상생활에 녹여져 있는 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 이기도 하다. 최경훈 회장은 체조를 알면 알수록 다양한 매력이 많은 스포 츠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 화합으로 가꾸는 부산체조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최경훈 회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 사이가 화목 하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끈끈할 수 있는 이유인즉슨, 최 회장 못지않게 임직원들 역시 10년 이상 소속되어 활동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식구들 성향이 악바리 근성이 넘치세요. (웃 음) 체조에 진심이기엔 모든 일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인터뷰 당시에도 협회 식구들의 친밀도가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였다. 오랜 시간 함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협회를 운영하면서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화합’이다. 무엇보다 화합을 위해서는 임 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임원분들께서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조를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있어 정형외과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임원 중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대회 때마다 앰블런스와 구급 장비 등을 대여해주시며, 혹 부상을 입은 선수나 참가자들 치료도 해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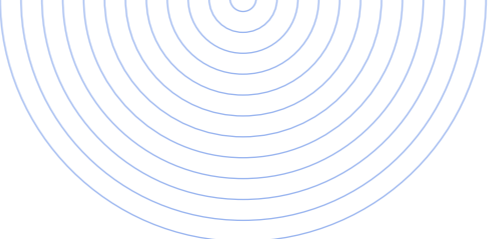
이처럼 임원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부산체조인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부산체조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합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체조를 향해 진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으며, 최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열정으로 피워낸 부산체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부산체조인들은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산의 생활체육 체조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 2연패(2022-2023)를 달성해 최강전력을 과시했으며, 올해는 일반부 생활댄스 부문 1위를,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가 6연패를 달성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생활체조는 댄스, 에어로빅(전문체육의 경우 에어로빅협회에서 관여) 등이 있으며, 유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고 계십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환경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체조를 즐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 회장은 다양한 대회 중 생활체조의 묘미를 느낀 적이 있다며,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조대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말해주었다. 대회 준비 기간 중,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이었고 본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안전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았으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가 승인을 했었다고.



“물론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참가 선수들의 동작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실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무대에서 자체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생활체조의 묘미’라는 것어요.”

반면, 맨몸으로 인간의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체조를 볼 때면 항상 심장이 떨린다고.

“길면 1분, 짧으면 3초 안에 끝나는 것이 체조잖아요. 종목 특성상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곤 하는 걸 알기에 늘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마다 감탄과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자 15세이하부 개인종합 3위(신현빈·부산서중학교3) 등 우리 선수들이 활약 해주어 참 고맙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 모두의 관심으로 활성화될 부산체조

부산은 부산아시아드체조체육관과 부산체육고등학교 등 체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오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문하고 있는데, 올해 대만에서 전지훈련 겸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몽골체조연맹과 생활체조 국제친선교류를 맺고자 몽골을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몽골에서 찾아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체조 심판 강습회를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체조는 종목이 많은 만큼 단일화된 규정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국제체조연맹 부회장님, 아시아체조연맹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습도 해주시면서 생활체조 심판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일에 우리 부산이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반면 전문체육 체조는 다른 종목과 달리 대학까지 연계가 잘되지 않아 선수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며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대회 개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최 회장은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자,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체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문체조 활성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생들이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체조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의 활약을 위해 전문체육 체조와 생활체육 체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경훈 회장은 끝으로 부산체조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결국은 ‘화합’입니다. 지금처럼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계속 화합해 나가는 부산광역시체조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더욱 하나가 되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 스윙! 바다 건너, 세계를 향해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격렬한 타구음. 역동적 스윙. 그 속에 감춰진 정신력과 수 싸움의 스포츠.  
여름 더위마저 눌러버릴 열정을 뽐내는 동래중학교 테니스부를 만나보았다.



##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선수들이 만든 화기애애한 훈련 분위기

부산 테니스 역사의 한줄기임을 자부하는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최근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단식 2위를 차지한 장준서 선수를 비롯한 테니스부 선수들의 훈련 열기가 뜨겁다. 같은 대회 단체전에서 원하던 성적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법도 한데, 누구 하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팀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고 말하는 김문호 지도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선수들이 만들어 가고 있음을 자랑했다.

“예전에도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올해 들어 그 성실함이 더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량을 뽐내던 장준서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까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단체 훈련이 끝난 뒤엔 개인 훈련을 자처하고, 새벽 훈련을 위해 해 뜨기 전에 등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도자 입장에서선 뿌듯하기 그지없죠.”



김문호 지도자

매사에 열심히 선수들의 모습에 흐뭇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김문호 지도자지만 한편으론 말하지 못할 고민도 있다.

“성적을 위해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선수의 미래까지 고민해야 하는 게 지도자의 입장이라, 노력의 결과가 따르지 않았을 때 선수들이 겪는 실망감이 걱정됩니다. 대회가 끝나면 결과가 선수 랭킹에 곧바로 반영되니까,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선 중압감을 느낍니다.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지도자이기 전에 테니스 선배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기에 진 선수에겐 한때 자신이 가르쳤던, 지금은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 선수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 등 김문호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강조하며 동래중학교 테니스부를 이끌어가고 있다.



🎯 **성적보다 중요한 건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애정**

욕심을 부리지 않고 테니스라는 운동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따를 것으로 믿는 그는 선수들에게 경험을 선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울산, 김해, 진주 등지의 선수단 지도자들과 협의해 합동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키우는 데에는 풍부한 경험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자주 참가할 수는 없지만, 부산만 벗어나도 다른 지역 새로운 스타일의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으니, 테니스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경쟁하던 선수들과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동료가 생기고 서로를 자극해 훈련에 매진하게 되니까, 몇 날 며칠 훈련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전채원 부감독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선수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올해 있을 대통령기, 협회장배 테니스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한 동시에 쾌활하다. 그런 선수들에게 김문호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한다.

“테니스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 이상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욕심이 앞서면 무리하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아직 성장기인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훈련이 끝나면 자주 대화를 하면서 멘탈을 잡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많은 선수들과 선수들의 장래를 고민하는 지도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와 교육청. 대회 때면 함께 자리해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기에, 동래중학교 테니스부의 2024년 전망은 밝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그 결실을 맺기를, 또 계속해서 테니스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선수 Interview**

- 1 나에게 테니스란? 2 올해 목표는? 3 앞으로의 포부는? 4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에게 한마디**



주장 천예준 선수

- 1 직업입니다. 오랫동안 할 일이니까 화내지 않고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 2 대통령배, 협회장기 8강을 넘어 입상하고 싶습니다.
- 3 다른 선수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꾸준히 해서 국제대회까지 나가겠습니다.
- 4 테니스를 먼저 시작한 후배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장준서 선수

- 1 재밌는 것!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 2 ITF 입상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ITF 랭킹 100위 안에 들고 싶습니다.
- 3 조코비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랜드슬램 23회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 4 지금까지 입상하지 못한 친구들도 실망하지 말고 함께 노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 수상내역 🎯

- 2024 ITF 아시아주니어 테니스대회 복식 1위
- 2024 전국학생테니스 선수권대회 14세부 개인전 우승 및 복식 3위
- 2024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식 2위

**이성전 교장 선생님**

동래중학교 테니스부는 1965년 창단되어 약 60년의 역사 동안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왔습니다. 최근 선수들이 제79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14세부 개인전 우승 및 복식 3위를 차지했고, 특히 청소년 국가대표 장준서 학생은 2024 ITF 아시아주니어테니스대회 복식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래중학교 테니스부가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기술적·정신적·신체적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스포츠맨십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모든 선수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래중학교 테니스부 선수들! 항상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땀 흘리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항상 응원합니다!

부산체육 수준 높인 박학봉 전 사무처장

글 원성만



<부산체육>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체육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부산체육 발자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부산체육 발자취>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50주년에 발간된 <부산 체육 50년사>에 이어 부산 체육의 서사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부산 체육 발전에 헌신한 원로 체육인의 발자취를 정리한다.

세월이 흘러도 백전노장의 품격은 그대로였다. 꾸준한 연습과 자기관리가 생명인 체육인으로서 70대 후반이라 여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서 여전히 몸에 밴 자기관리가 그대로 느껴졌다.

1967년부터 전국체전 23년 연속 출전, 8년간 국가대표 활동

박학봉(76) 전 사무처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앞서 부산시 육상경기연맹 부회장까지 합치면 8년간 부산체육에 몸담은 것이다.

부산체육의 행정을 시작하기 전엔 '전국체전 부산 최다 메달리스트'로 유명했다. 1967년부터 1989년까지 2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전국체전에 연속 출전했다. 1967년부터 8년간은 육상 원반던지기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육상 투포환과 투해머, 투원반, 씨름과 역도 등 다양한 종목에 참가해 51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산 체육사에서 그보다 메달을 많이 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1979년에는 '미스터&미즈 부산 선발대회'에서 13대 미스터 부산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1973년 창단한 동아대학교 육상부는 명실상부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자랑한다. 한때 동아대 육상부가 곧 육상 국가대표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십 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박학봉 전 사무처장은 동아대 육상부 창단 멤버이다. 대학교 4학년 때는 부산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했고, 부산은행 육상팀에서 활동하면서는 모교인 동아대학교 육상부 감독 등 체육 지도자로서도 많은 우수 선수를 길러내는데 헌신했다.

특히 박학봉 전 사무처장이 실업육상팀 선수로 활동한 부산은행 육상팀은 1981년에 창단했는데 부산 육상의 중추 역할을 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고, 육상 종목이 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스포츠로 대접받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순수 기업이 광고효과도 별로 없는 육상팀을 운영하는 것은 어지간한 애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비인기 종목임에도 다른 데 한 눈 팔지 않고 평생 육상 종목 한 길을 묵묵히 걸어 온 박학봉 전 사무처장, 체육인으로서의 성실성과 육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한다.

**체육인 출신 사무처장으로서 많은 업적 남겨**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스포츠가 시민 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산체육 관련 정책을 집행·총괄한다. 그래서 '부산체육행정의 꽃'으로 불린다.



박학봉 전 사무처장 재임 기간에 부산체육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됐다. 부산체육회관 건립, 500억 원 규모의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업팀 창단 등 부산 체육계의 묵은 숙원 해소와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데도 노력했다.

“고인이 되신 안상영 시장님은 사직야구장 근처 부지에 부산체육회관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당시 제가 시장님께 브리핑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교통 접근성과 향후 활용도 측면에서 뛰어나 수익 사업에 유리하다는 체육계 건의를 받아들으신 거죠.”

새천년인 21세기 부산체육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시 체육진흥기금' 500억 원 조성이 추진됐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다.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이자 등으로 부산시체육회 재정지원금, 체육 선수, 지도자 양성 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박학봉 전 사무처장 재임 기간에 실업팀이 잇따라 창단되는 등 부산체육계가 힘찬 기지개를 켜던 것도 주목할 일이다. 중구 수영, 강서구청 카누, 기장구청 씨름, 서원유통의 농구와 실업축구팀 '대우 부산' 등이 창단했다. 실업팀 창단은 부산 출신 선수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Park Hak-bong



**휴머니즘 강조한 '체육인 헌장' 정신 디돌아바라**

'체육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으로 삶의 근본이 된다. 이에 체육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도전과 용기, 끈기와 열정으로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된다. 체육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로 시작하는 '체육인 헌장'은 1969년 4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제정·발표했다.

하지만 성과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04년에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시는 13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부산체육계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무처장 직을 사임했다.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는 전국체육대회가 지금과 같은 시·도별 경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학봉 전 사무처장은 “체육인은 우리 사회의 산소 같은 존재”라고 믿는다. “프로 스포츠만 활성화되고 아마추어는 그대로 말라버렸다.”며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에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 체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00명 중에 국가대표 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아요. 클럽 활동하듯이 학생들이 학교 체육을 재미있게, 즐겁게 하다가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지원하는 시스템을 점점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부산 체육인들에게 말한다. “우리 체육인들, 특히 지도자, 은퇴 선수들이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제도와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앞으로 부산체육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Secretary General



# 하늘을 날아, 나를 넘어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선수

(사진 본인 제공)

장대높이뛰기 한국 최고 기록 보유자 진민섭 선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장대높이뛰기 1인자다. 그를 만나 23년간 끊임없이 스스로를 뛰어넘은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THE POLE JUMP



### 하나뿐인 선택지가 곧 정답

“초등학교 때 멀리뛰기 선수였는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없었고, 또래에 비해 피지컬이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한국 선수 첫 금메달(2009), 장대높이뛰기 한국 최고 기록 여덟 번 경신(2013~2020) 등 우리나라 육상 종목에 발자국을 깊게 새기고 있는 진민섭 선수. 그가 진로를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게 놀라운 한편, 장대높이뛰기에 도전했다는 게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장대높이뛰기는 다른 육상 종목에 비해 부상 위험이 있는 편이라 선수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진민섭 선수에게 유일하게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 종목이 장대높이뛰기였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었던 그는 망설임 없이 종목을 바꿨다. 장대높이뛰기와의 첫 만남은 마냥 즐거웠다. 그런데 기술을

익혀갈수록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실제로 부상을 당하면서 더욱 겁을 먹게 되었다고.

“장대를 꽃고 매트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박고 기절했어요. 그때부터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과 선배들이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극복해야 된다, 떨어져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무서움이 없어졌습니다.”

진민섭 선수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보낸 후 키가 훌쩍 자란 것과 동시에 근력이 발달했다. 이런 신체 변화는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량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 덕분에 장대높이뛰기에 대한 애정도 샘솟기 시작했다. 장대높이뛰기는 모든 육상 종목을 잘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종목이라 더 매력적이라고 한다. 그의 장대높이뛰기에 대한 사랑은 좋은 성과로 돌아왔다.



### 부상 극복, 새로운 출발

진민섭 선수는 최근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목표했던 5m 40cm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저력을 드러냈다. 그가 가진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대회 우승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의미 또한 남달랐다. 2022년 전국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훈련하던 중 슬개건 파열, 갈비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1년이 넘는 재활 기간을 보낸 후 2년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도 못한 큰 부상을 당하니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대신 재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정말 열심히 재활 치료에 임했어요.”

평소 ‘멘탈이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진민섭 선수는 딱 앞부터 남달랐다. 초등학생 시절,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도 운동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를 눈여겨 본 한 지도자는 “쪼매난게 진짜 야물딱지다!”며 감탄했다.

“조그마한 아이가 열심히 하니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딱한 마음에 ‘재가 잘돼야 할 텐데’라며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의 성실함을 지켜본 건 어른들만이 아니었다. 진민섭 선수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함께 운동을 하다가 재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한 선배는 그가 부상을 당하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며 먼저 합숙을 제안했다. 실제로 한 달간 합숙하며 애써준 선배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관심 덕분에 진민섭 선수는 병원에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빨리 재활 치료를 끝낼 수 있었다.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했다. 예전 몸은 잊고 지금 몸 상태를 받아들이니 차근차근 기량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시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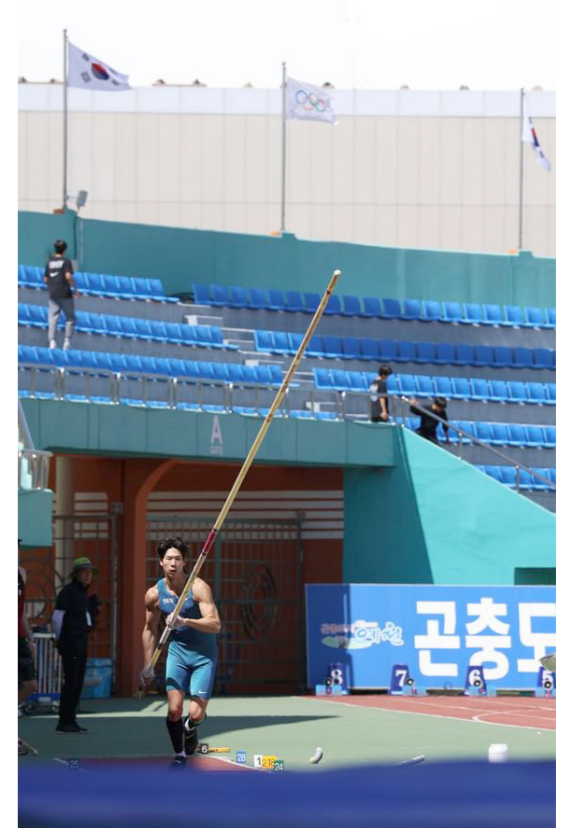
### 화려한 과거보다 더 빛날 미래

진민섭 선수가 5m 80cm라는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운 대회는 2020년 호주에서 열린 ‘뱅크타운 장대높이뛰기대회’다. 이 대회에는 기록만큼이나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대회에서 진민섭 선수가 사용한 장대가 무려 30년이나 된 다른 사람의 장대였다는 것이다. 호주 공항에서 문제가 생겨 장대를 반입할 수 없었고 급하게 수소문하여 대회 장소에서 약 1,800km 떨어진 곳까지 코치님이 직접 가서 장대를 빌려와 겨우 대회에 출전했다. 당시 진민섭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의 장대라니. 게다가 보통 10년 주기로 장대를 교체하는데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대로 대회에 출전하러니 불안했다. 하지만 다행히 장대 상태가 괜찮았고, 그 장대로 힘차게 발돋움해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우리나라 장대높이뛰기의 새 역사를 썼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게 곧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일인 진민섭 선수. 그는 또다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는 마지막 목표를 세워두고 우선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누군가는 혹사라 할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결국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을 악바리 근성으로 하면 결국 이뤄내더라고요. 악바리 근성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현재 연세구청 소속인 진민섭 선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주석수 연세구청장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장유현 감독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를 지켜봐 온 장유현 감독은 그에게 ‘야물딱지다’는 칭찬을 한 바로 그 사람이다. 부상 이후 그의 기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인 와중에 장유현 감독은 “나랑 하면 예전 기량만큼 올라올 수 있다. 내 눈에는 네 실력이 늘 거라는 게 분명히 보인다.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장유현 감독의 예상은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우승으로 증명되었으며, 진민섭 선수는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신뢰가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오랜 세월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로 뚝뚝 뚫린 두 사람이 써 내려갈 우리나라 장대높이뛰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남녀 동반 입상

##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5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진행된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이 남녀 동반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이 얻은 성과를 자세히 알아보자.



### 좋은 팀워크가 만든 성과

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대회는 국내 검도대회 중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꼽힌다.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는 대한검도회 주최, 천안시검도회·충청남도검도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충청남도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대회는 전문 선수등록을 한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개인전(남자 고등부·대학부·일반부, 여자 고등부·대학부·일반부)과 단체전(남자 고등부·대학부·일반부, 여자부)이 펼쳐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은 개인전(여자 일반부)에서 이예진 선수가 금메달을, 단체전에서 여자부와 남자 일반부에서 각각 동메달을 거머쥐며 남녀 동반 입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은 실업검도팀 유일의 남녀혼성팀으로,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한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여자부 금메달, 개인전 여자부 은메달(이예진)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 다시 동반 입상을 목표로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이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눈부신 활약을 한 이예진 선수는 16강 최아영 선수(화성시청)와의 대결에서 1-0으로 승리, 8강 허윤영 선수(탑솔라)와의 대결에서는 2-0으로 승리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최주원 선수(경주시청)를 상대로 연장전에서 머리치기로 득점하며 결승전에 진출, 결승전에서도 조희선 선수(김해시체육회)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퇴격 머리치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 남자부는 16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를, 8강에서 인제군청을 상대로 승리했다. 달서구청과의 준결승에서는 선봉 이상호 선수가 2-0으로 패, 최용찬 선수와 중견 박찬우 선수는 비겼다. 이어서 부장 김민규 선수는 0-0으로 비기고, 주장 조관현 선수가 1-0으로 이겼으나 1포인트 차이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 여자부는 8강에서 (주)사이닝을 2-1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준결승에서 김해시체육회를 상대로 선봉 신민정 선수가 1-0으로 승리, 이예진 선수가 1-2로 패했다. 중견 지은비 선수가 0-1로 패하고, 부장 배지원 선수가 1-0으로 승리, 윤하늘 선수가 동점이 되면서 박빙의 경기가 이어졌고, 대표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나 아쉽게도 신민정 선수가 상대에게 머리를 내주며 동메달이 확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 서준배 감독은 남녀 단체 동반 입상과 여자부 개인전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남겨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전국체전에서도 단체 동반 입상을 하도록 훈련에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부산선수단 23년 만에 **최다 메달 획득!**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지난 5월 25일(토)부터 28일(화)까지 나흘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치러진 제53회 전국소년체육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6개 종목 12,153명의 선수, 6,604명의 임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23년 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하고 당당히 귀환했다.

## 대회의 주역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수영, 축구, 골프, 육상, 양궁, 복싱, 태권도, 테니스, 펜싱,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대회 기간 내내 도합 20개 가까운 메달을 획득하며 부산선수단의 성과를 견인, 부산 수영의 진면목을 자랑해 보였다.

한동안 부진했던 단체 종목에서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축구 남중부 부산아이파크 U15 낙동중은 결승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14득점 1실점으로 압도적 경기력을 뽐내며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초등부에 출전한 부산해운대FC U12팀은 결승에서 경북 포항 스틸러스 U12 포천초등학교와의 대결에서 2-3으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육상에서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정예림(연산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골프 종목에서는 마지막 날 한 번에 메달 4개(금2, 은2)를 획득했다. 남중부 손제아·김태휘(동아중)·박한솔(센텀중)이 2라운드 합계 288타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중부 윤다감(동아중)·김규빈·윤규리(학산여중)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울러 펜싱 단체전에선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선수들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고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공스포츠클럽 선수들도 금 2개, 은 1개, 동 2개 등을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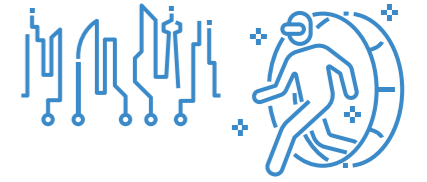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예년에 비해 단체 종목에서 선전한 선수들 덕분에 근래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올해는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만큼, 이 선수들이 성장해 내년 대회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47개 총 93개 메달을 획득하며 부산 스포츠의 미래를 밝혔다.



# 첨단기술과 스포츠의 만남 새로운 세상을 열다

스포츠에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세계 스포츠 산업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스포츠 팀과 선수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팬들은 가상현실, NFT 등 새로운 방식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 이젠 스포츠도 가상현실 속에서!

세계 스포츠산업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2019년 241억 달러로 추산되었던 스포츠 기술 시장의 규모는 2027년 654억 달러로 경총 뛰어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신 디지털 기술은 강력한 스포츠 팬덤 형성에 필수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광대한 범위의 스포츠 관련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의 승패, 기록, 최신 뉴스 등 거의 모든 것을 모바일 앱,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모두가 첨단기술과 스포츠산업의 만남 덕분이다.

메타(구 페이스북)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엑스타디움(XTADIUM)'이라는 앱을 출시, NBA, UFC 등 인기 있는 경기를 현장에서 바로 관전하는 듯한 체험을 팬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 앱에는 '스마트 스타디움'이라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가상현실 속 관객은 티켓을 구입하여 경기장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고, 게임을 구경하거나 기념품을 사는 등 현실과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 가상현실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메타의 XTADIUM

참고자료 : 시장조사 전문기관 'GMO Research & AI' 홈페이지, 美 롤링스톤誌 2023. 4. 21. 기사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We Interact With Sports'

### ❖ 축구 심판을 보거나 레이싱 카를 만드는 AI

사람들이 첨단기술의 위력을 가장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는 스포츠는 축구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인공지능 칩이 장착된 공식 FIFA 축구공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됐다. 여기에 부착된 센서는 공의 움직임을 500분의 1초 단위로 포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와 함께 이 축구공이 전송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거의 자동으로 선수의 오프사이드 반칙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자동차 경주 분야에서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은 레이싱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입된 F1의 예산 제한 조치에 따라 각 팀들은 선수들의 연봉을 올리거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경주용 차량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 팀들은 하이테크 경주용 차량 제작에 드는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첨단기술은 선수들의 훈련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첨단 센서와 트래킹 시스템, 세세한 동작을 찍어내는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훈련 분석 장비는 사람의 눈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부분까지 포착, 선수들에게 가장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프로 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이러한 장비가 도입되어 학생 선수들 또한 첨단기술 기반의 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10초짜리 덩크슛 영상의 엄청난 가치

기술 발전의 혜택은 대학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대학 스포츠의 인기가 높은 미국에서 대학 선수들은 전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장학금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2021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대학 선수들도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 등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행위인 '상표권 영리 추구(NIL Deal)'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따라서 선수들은 시합 후

▼ AI와 머신 러닝을 통해 설계되는 레이싱 카



◀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는 AI 분석 장비  
▶ 가상현실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팬



### ❖ OTT,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수익원

스포츠산업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처럼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할 역량이 부족한 OTT 기업들이 그 대안으로 스포츠 중계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OTT 공룡의 공세에 열세를 면치 못하던 토종 OTT 기업들 중 티빙은 한국프로야구(KBO) 시리즈 중계권을 확보해 2024년 1분기에 큰 폭의 가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제58회 슈퍼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한국 프로축구(K리그)' 등을 중계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다.

이 분야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과 '아마존'이라는 선례가 있다. '애플 TV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미국의 최상위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의 10년 장기 중계권을 계약하여 리그를 함께 키워가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은 미국 내 최고 인기 프로 스포츠인 미국 풋볼 리그(NFL) 중계권 중에서 목요일 경기만 독점으로 확보했다.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이를 통해 아마존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OTT라는 새로운 IT 기반 구독 서비스는 스포츠산업의 파이를 더 키워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첨단기술은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선수와 팬들의 간의 교류, 팬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스포츠팀들도 이러한 첨단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팬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탄탄한 팬덤을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고의 플레이 사진이나 영상을 즉시 편집하여 소셜 미디어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의 광고 수익을 얻거나 NFT\*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토큰. 여기서는 실제 스포츠 상품에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을 뜻한다.

사실 해외에서 선수들의 NFT 발행은 이제 흔한 얘기다.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들은 사진, 음성, 영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 스포츠 팬의 60% 이상이 이와 관련된 NFT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2021년 2월에는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10초짜리 덩크슛 영상이 NFT로 발행되어 무려 20만 8천 달러(2억 3천만 원)에 낙찰된 일이 있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축구 게임인 '소레어(Sorare)'에서는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의 카드를 수집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팀을 꾸릴 수 있다. 팬들은 실제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게임 내에서 점수를 얻게 된다. 최고가를 기록한 카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무려 29만 달러(3억 4,300만 원)에 판매되었다.

이처럼 선수를 향한 팬덤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매 경기마다 선수들의 명장면이 탄생되는 인기 스포츠는 NFT 판매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큰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 시원한 빙판 위에서 건강과 재미를 모두 잡다 부산실내빙상장

사계절 내내 시원한 얼음을 가르며 스케이팅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실내빙상장. 날씨가 더운 여름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로 많은 이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얼음 위에서 건강과 재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부산실내빙상장을 소개한다.

### 부산실내빙상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북구문화예술회관과의 복합건립 건의를 거쳐 2005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인수해 현재의 '부산실내빙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주는 만큼 쾌적한 환경 마련을 하고자 최근 약 두 달 반 동안 누수, 조명, 방수, 단열 등 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해 6월 1일부로 재개관하였습니다. 직원 수는 11명으로 시설, 미화, 행정, 의무 강사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연간 3천여 명으로, 일반 이용객 외에도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등 선수들과 동호

회를 대상으로 대관도 진행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일일 입장객은 약 5만 5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운영 중인 강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산실내빙상장은 전문체육인 양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도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 개선과 다양한 시스템을 구비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부산실내빙상장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쇼트·피겨), 성인(쇼트·피겨) 반이 있으며, 주 2회 13개의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방학 기간에 많이 찾았 때

문에 주 3회, 2주 완성으로 이루어진 단기 특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실내빙상장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산실내빙상장은 특히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그 덕분에 화기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빙질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빙상장을 여럿 다녀본 분들이 부산실내빙상장의 우수한 빙질을 장점으로 많이 꼽습니다. 1시간 단위로 빙판을 정비하며,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산실내빙상장 운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얼음판으로 되어 있는 빙상장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장 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마다 상시 배치된 안전요원이 안전을 점검합니다. 주말, 방학 등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안전 보조요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빙상장 이용객인 동호인 분들의 자원봉사로 가능한 것이죠. 이 점 또한 다른 빙상장에 없는 부산실내빙상장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용객이 다치거나 환자 발생 시 병원 자체에서 응급팀이 와 병원 이송을 돕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 부산실내빙상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부산실내빙상장은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지만 빙상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혹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단체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빙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산실내빙상장이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Mini Interview



부산실내빙상장 강지웅 센터장

관리자의 전문 경영 철학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소통이, 외부적으로는 이용객,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빙상장이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화합과 소통에 마음을 쏟으며 부산실내빙상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많은 분께서 이곳을 찾아 즐거움을 누리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함께 증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 Foot-Volleyball ★



‘부산중앙족구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초반, 학생들과 수업을 하던 중 간단하게 음료수 내기를 하는 차원에서 족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혈기 왕성한 시기라 승부욕이 앞서다 보니 부상 당하는 일이 생겼죠. 이렇게 위험하게 운동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우연히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조그마한 족구장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아이들과 족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학생들과 해보니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음은 물론 재미까지 있더라고요. 이후 2016년 ‘부산중앙족구단’을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부산중앙족구단은 평균 연령 20대, 5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우선시 되는 학원에서 족구를 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족구를 한다니, 그것도 학원에서! (웃음)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왜 운동까지 가르치느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었죠. 다만, 학생들이 공부 이외의 시간에 가는 곳은 결국 PC방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약속했죠. PC방을 근절시키고 학생들에게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성적까지 향상시켜 놓겠노라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족구를 하면서 몸이 튼튼해지니 자연스레 마음까지 건강해졌고, 고3 때 성적이 훨씬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환영해 주십니다.



족구, 찰나의 관심? 인생의 중심!

족구동호회 ‘부산중앙족구단’

학원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가 모여 창설된 족구동호회가 있다?!

시작은 그저 놀이였는데, 족구를 진심으로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전국 동호회에서 최강전력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부산중앙족구단’을 만나보자.

부산중앙족구단

- 📅 2016년 동호회 창단
- 📅 2023년 족구 승강제리그 플레이오프 준우승 (J3 승강)
- 📅 202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우승 (부산대표 출전)
- 📅 기타 다수 대회 우승







### 족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족구는 나이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 대회에서 6~70대 어르신들과 족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만 놓고 봤을 땐 '젊은 우리가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분들을 상대로 10점도 내지 못했죠. 물론 어르신들의 개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팀워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족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구나. 팀원 4명이 합을 맞춰 움직이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을요.

또한 족구는 인생과도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경기에서 밀리게 되면 멘탈이 흔들려서 게임의 흐름을 잃기 마련인데요. 반면, 어르신 분들은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그저 미소 지으며 족구를 하시는 겁니다. 10년 넘게 족구를 해온 지금에서야 그 분들이 지던 미소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승부 이전에 족구를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 부산중앙족구단은 전문적으로 족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막 족구를 시작하던 때, 한 동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희의 족구 플레이를 지켜보시더니 '족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죠. 가볍게 공을 툭툭 차던 저희와는 달리 동호인 분께서는 대포알을 쏜 것처럼 엄청난 세기로 공을 확! 차서 네트를 넘기시더라고요. 이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알던 족구는 족구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족구를 배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고 족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던 중, 당시 천안의 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족구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듣기 위해 1년 정도 부산에서 천안까지 오가며 족구를 배웠고, 부산중앙 회원들에게도 전문적으로 족구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부산중앙족구단 백무현 회장 / 박동조 단장



부산 족구동호회 중 명실상부 최강을 자랑하는 부산중앙족구단 단장 박동조입니다. 대부분 회원들이 학원에서 맺어진 사이인데, '족구'를 통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올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부산중앙족구단의 무대가 전국구로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성원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중앙족구단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족구장 시설이 하나도 없어 다른 구장을 전전하며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족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중앙족구단은 앞으로 회원들이 학교스포츠에서 족구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족구에 흥미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부산중앙족구단'을 찾아주세요!

### 족구를 향한 진심으로 지역대회는 물론 전국대회에서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중앙족구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대회 출전 제안을 받아서이기도 한데요. 취미부로 14개 대회에 출전했고, 첫 참가 대회는 준우승, 이후 13개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산중앙'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작년부터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부산 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작년 11월 안동에서 진행된 '2023 족구 승강제리그 플레이오프' 대회입니다. 영하 10도의 한기로 인해 목에 고드름까지 달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죠. 복장 규정상 타이즈를 입어도 반바지를 착용해야 하는데 극한 상황이었음에도 선수(회원)들이 싫은 내색 하나 없더라고요. 게다가 선수들끼리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하나 되기 위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대회를 더 즐길 수 있는지 선수들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아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부산중앙족구단은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족구리그 J3로 승강되었다.(대한민국족구협회 기준 J1 프로리그, J2 전국체전출전부 J3 전국 일반부, J4~J5 지역 일반부로 승강제 리그가 구성되어 있다.))

### 족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산중앙족구단,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산중앙족구단은 선수부, 청소년부, 취미부로 나뉩니다. 선수부와 청소년부는 주 2회(수·일요일)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10여 년 넘게 함께 해오다 보니 기수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부가 청소년부를 지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취미부는 이제 막 족구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단장이 직접 토요일에 개인 레슨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웃음) 제기차기 10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족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중앙족구단은 족구에 대한 진심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J3리그에서 전국 우승을 하고자 합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볼링대회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김도호



가족과 함께하는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볼링대회가 지난 5월 12일(일) 대연 김스볼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볼링(Bowling)은 보통 레저 스포츠로 분류되며,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아시안 게임과 데플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이다. 그래서 월드 게임에도 해당 종목이 있다.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테크닉이 수반되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 데플림픽 : 청각장애인이 참가하는 올림픽과 유사한 국제경기대회

이날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상임부회장, 신현기 사무처장, 오은택 남구청장, 서지연 시의원, 송연익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회장, 이승영 부산볼링협회 부회장 등 많은 대회 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광역시 최초로 가족 2인조 즉, 부부간 한 조가 되는 부부볼링대회와 세대 간 한 조가 되는 가족볼링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부부볼링대회는 33개 팀 66명, 가족볼링대회는 22개 팀 44명이 참가했다.

참가 자격을 보면 부부대회는 꼭 부부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세대 간 가족볼링대회는 부모와 자녀이거나, 고모(삼촌)와 조카, 조부모와 손자, 손녀 관계도 출전 가능하며, 가족 중 1명은 필히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본선경기 방법은 1조(부부볼링대회)는 개인 4게임 총 8게임 합산으로 등수를 정하며, 2조(세대 간 가족볼링대회)는 스카치 3게임으로 진행하여(초구는 초등학생 선수가 선투구 함) 그 합산으로 등수를 정하였다.

스카치 게임은 2명이 1팀이 되어 한 투구씩 번갈아 가며 투구를 하는 게임 방식으로 한 명이 초구를치고 다음 사람이 스페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마다 4개 팀이 최종결승전을 치르게 되며, 오는 6월 18일(화) TV파이널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경기장인 대연김스볼링장은 레인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대회를 원활하게 개최함에 손색이 없는 볼링장으로 보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자신의 팀 투구가 끝나면, 상대방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과 조언들을 건넸다. 세대 간 가족볼링대회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주로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기 중 자녀들에게 자세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배운대로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따뜻한 가족의 정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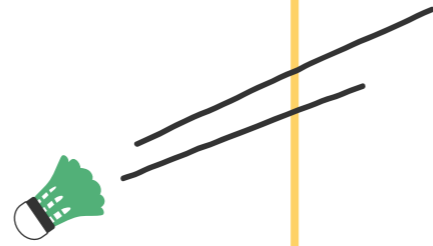
경기 진행을 담당하는 김선미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총무이사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그리고 가족애를 더 느끼고, 부부간 행복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족 볼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풀기에는 볼링만 한 운동이 없으며,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의 짜릿한 쾌감은 정말 최고다.”라고 했다.

송연익 부산볼링협회 회장은 “Beginner 볼링대회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일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취미 생활을 통해 가족, 나아가 부산 시민이 함께 삶의 낙을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체육 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볼링은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재미있는 운동이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볼링장에서는 상대 선수에 대한 밝은 인사, 같은 팀들 간에 핸드터치와 격려를 통해 서로를 실컷 응원해주며 칭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충전되어, 집으로 돌아가서도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잡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

글 \_ 제4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심송민



공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예술이자, 라켓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의 세계 배드민턴.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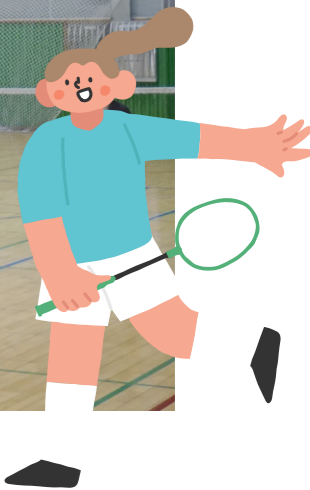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회관을 이용해 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다. 교실 프로그램은 체육회관 4층, 연면적 1,239㎡ 규모를 지닌 월계관(月桂館)에서 진행된다. 이곳에는 체육관을 비롯하여 사물함, 샤워실, 주차장 등의 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효율적인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현재 '배드민턴'과 '농구' 종목을 교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중 배드민턴 교실은 매년 빠른 마감율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배드민턴 교실을 수강 중인 수강생들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만의 강점으로 "수강료가 저렴하고 대기 공간, 체육관, 주차장, 샤워실 같은 시설의 관리가 매우 잘 되어있다."라며 배드민턴 교실의 인기 비결을 밝혔다.

배드민턴은 셔틀콕이라는 깃털이 달린 공을 네트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쳐서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이다. 이 스포츠는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대중에게 가장 널리 퍼진 라켓 종목 중 하나이다.

배드민턴 교실을 수강 중인 이은미·주은진 수강생 또한 배드민턴 종목을 매력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적은 인원, 짧은 시간으로도 승부가 난다."라고 말하며 배드민턴 교실 수강 이후 근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배드민턴 교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배드민턴 교실 오전반을 담당하는 손진원 지도자 통해 들어보았다.

### Q. 손진원 지도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배드민턴 교실 오전반을 맡은 손진원이라고 합니다.

### Q.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매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코트 크기가 축구와 농구보다는 조금 작지만, 셔틀콕만 보고 열심히 뿔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타격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배드민턴 클럽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클럽마다 공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은 다양한 클럽에 계시던 분들이 모여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교실만의 강점입니다. (웃음)

### Q. 배드민턴 교실 지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강생분들이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 배드민턴 교실 내에서 손진원배 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도 안전하게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실에는 A조, B조, C조처럼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 모든 수강생분이 A조로 올라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 Q.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오신 수강생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수업받으러 오셨는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스윙 자세를 취하시더라고요. 제가 어깨가 몹시 아프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1년을 그렇게 치시다가 결국 어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년 동안은 수술 후 자세 교정만 하느라 게임을 아예 못 치셨는데, 자세 교정 후에 유튜브를 잘못 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오신 수강생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통해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배드민턴 교실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달에 4만 5천 원만 지급하면 수업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실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셨다시피 회원들의 실력이 매우 다양하기에 걱정하지 말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대중적인 스포츠 배드민턴. 하지만 이번 부산광역시체육회 배드민턴 교실 방문을 통해 그만큼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실 프로그램 혜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



한민족의 얼을 담은 스포츠

# 궁도

자연을 가득 다음 활터에 고요함이 가득하다.  
 오로지 궁수와 과녁, 그리고 활과 화살만이 존재하는 시간.  
 모든 정신과 호흡을 집중하여 쏜 화살이 탁! 명중했을 때,  
 가슴 깊이 퍼지는 울림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궁도의 역사

궁도는 국궁(國弓)이라고도 불리며 활을 쏘는 무술이라는 의미로 궁술이라고도 한다(양궁(洋弓)은 서양식 활이라는 뜻).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의 민족으로 불렸다. 이웃 중국은 무예의 중심이 창이었고 일본은 칼이었다면 우리 민족은 활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무(武)를 숭상하는 풍조가 더욱 짙어졌다. 이에 따라 궁술은 상무정신(무력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기르고 전투에선 적을 제압할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삼국 가운데 활쏘기가 가장 성행했던 나라는 고구려였다.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東明王)의 이름은 주몽(朱蒙)인데, 주몽은 활 잘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또 고구려 15대 미천왕은 하루에 사슴 40마리를 잡고 화살 한 대로 날아가는 기러기 두 마리를 꿰어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렵도는 말을 타고 맹수를 쫓아 달리며 시위를 당기는 무인들의 능률한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왕조도 활쏘기를 숭상하였다. 고려시대 군사편제 가운데

경궁(梗弓)·사궁(射弓)·정노(精弩)·강노(剛弩) 등은 활쏘기에 능한 병사들을 따로 뽑아 만든 궁술부대로 추측된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는 문치주의를 지향했기에 무예가 그리 강조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쏘기는 무인들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이었다. 성종 19년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은 건문록 조선부(朝鮮賦)에서 '조선이 귀히 여기는 것은 화피 활인데 크기는 다소 작지만 화살 보내는 힘이 매우 세다고 했다. 이 화피 활은 각궁을 말하는 것으로 길이는 중국의 활보다 짧으나 힘은 강함을 인정한 것이다. 조선의 활은 중국 일본의 활에 비해 작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뛰어났다. 각궁의 경우 전투용과 습사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00m에서 200m를 날아가는 데 반해 중국 일본의 활은 사거리가 그 절반에 불과했다. 조선은 활이 주 병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재료를 사용해 가볍고 작으면서도 멀리 날아가는 최첨단의 활을 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출처] 대한궁도협회

## 부산의 궁도 이야기

1940년대 부산 동구 초량동에는 연무정(演武亭)이 있었다. 범일동 자성대 근처에도 정(亭)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활을 쏘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들은 모두 일제의 도시 확장을 위한 구실로 폐정됐다. 한국인의 전통무예를 완전히 말살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들이 이전 또는 폐쇄되자, 1950년경에 이르러 부산의 궁도인들이 국궁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서구 부용동 뒷산에 무덕정(武德亭)을 건립해 전국대회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1957년 부산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체육대회는 마땅한 사정(射亭)이 없어 구덕공설운동장에 임시로 과녁을 세워 대회를 치러야만 했다. 이후 정이 갖춰지면서 1973년 제54회 전국체육대회 궁도대회 주최와 1976년 부산개항 100주년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현재 부산에는 구덕정, 낙동정, 수영정, 사직정 등 4개의 국궁장이 있다.

[자료출처] 부산체육50년사



## 활과 화살의 명칭



활은 몸체인 '활대'와 활줄인 '활시위'로 구성되어 있다. 엷은활(張弓)은 우리가 '활'을 떠올릴 때의 모습인 활대에 시위가 걸어 놓아진 걸 말한다. 반대로 부린활(弛弓)은 활대에 시위를 풀어놓은 것을 뜻한다. (활은 시위를 풀어서 부린활 형태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 시위를 걸어서 엷은 활 형태로 사용한다.)

사진 제공: 영집궁시박물관

## 알아두면 쓸모 있는

### 궁도 기초 상식

#### 각궁, 복원력과 탄력성이 우수

궁도에서 사용하는 각궁(角弓)은 복원력과 탄력성이 매우 우수하여 세계 어느 민족의 활보다도 먼 거리를 쏘는 데 용이하다.

#### 활 자체에서 충격 흡수

궁도의 활에는 조준기나 스테빌라이저(화살을 발사하는 순간 활의 진동을 흡수시키는 진동 방지기)와 같은 기계장치를 부착시키지 않음에도 적중률이 아주 뛰어나다. 또한 화살을 쏠 때 활의 몸체에서 오는 충격을 활 자체에서 모두 흡수하므로 인체에 무리가 없다.

#### 궁수 개인에게 맞는 활 선택

일반적으로 활을 당겨 145m 거리에 있는 과녁을 맞히려면 여성은 18~19.5kg, 남성은 20~23kg의 힘이 필요하다. 활의 중량강도(重量強度)가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궁수 개인의 힘에 맞는 활을 선택하면 된다.

#### 복장, 백의민족 상징

궁도경기에서 복장은 공식적으로 위아래 흰옷에 흰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윗옷의 목 부분에는 깃이 있어야 하며, 반바지나 슬리퍼 차림은 금기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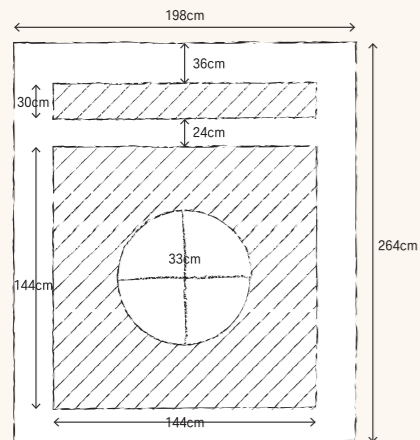
#### 사대에 서면 1순 쏘기

활을 쏘려면 궁대에 화살 5개를 끼우는데, 이 다섯 발을 1순(巡)이라 한다. 사대에서 1순을 쏘고 내려오면 되고, 여러 명이 쏠 때에는 한 발씩, 순서대로 1순을 쏜다.

#### 영광스런 칭호, 명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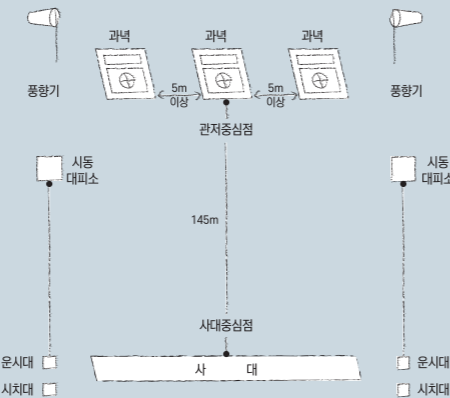
대한궁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승단시험이 있다. 1단부터 9단까지 품계가 있다. 1단이 되려면 9순(45발) 중 24발 이상, 5단이 되려면 31발 이상 명중해야 한다. 5단이 되면 영광스러운 '명궁' 칭호를 얻는다.

## 과녁



◇ 과녁은 두께 5~6cm의 육송으로 된 사각모양으로 가로(폭) 2m 세로(높이) 2m 66.7cm의 크기로 전면부에 화살의 보호를 위해 두께 0.5cm 이상의 고무판을 씌워야 한다. 못 등 화살을 파손할 수 있는 것이 과녁 전면부에 있어서는 안 된다.

## 궁도 경기장



- ◇ 사대 중심점에서 관저 중심까지의 거리는 145m
- ◇ 과녁과 과녁 사이의 거리는 5m 이상 간격 유지
- ◇ 과녁은 수직으로부터 후방 15도의 경사각으로 설치, 사대와 과녁은 수평 선상에 위치(2m 편차 허용)
- ◇ 과녁 후면의 안전지대 필히 확보
- ◇ 사대 폭은 선수 간 간격 80cm 이상, 관과 관 사이 사대 간격은 1m 이상 폭 확보

## 방방곡곡 부산 활터



#### ① 사직정

사대에 서면 좌측으로는 푸르른 산이, 우측에는 부산아시아드경기장이 한눈에 보여 이색적인 풍광 속에서 활을 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 ② 낙동정

삼락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대 앞쪽으로 계절에 따른 예쁜 꽃들이 심겨져 있어, 생태공원의 묘미를 느끼며 궁도를 즐길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26

#### ③ 구덕정

구봉산 기슭을 따라 자리한 구덕정. 비 내리는 날이면, 과녁 뒤편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동양화의 한 폭을 연상케 한다. 화창한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보여 활 쏘는 재미를 더한다.

📍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320번길 59

#### ④ 수영정

동아중학교 근방, 금련산기슭에 숨겨져 있는 수영정. 사대와 과녁 사이에 금련산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어 자연 위로 과녁을 명중하는 묘미가 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암로29번지 가길 54-19



# 만능 엔터테이너, 최성열 이사를 만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최성열 이사

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센터, 컨설팅, 학회, 유튜브까지...  
만능 엔터테이너로 다양한 삶을 보내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최성열 이사를 만나 앞으로 부산체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산최내과 및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이자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최성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병의원 개원 컨설팅 등을 맡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내과최원장'을 통해 시기에 어울리는 건강 상식,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매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Q. 유년 시절 야구 및 육상선수를 하셨다고요?**

초등학생 때에는 미국에서 리틀리그 선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구부가 흔하지 않던 때였거든요. 야구를 그만둔 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육상을 했습니다. 요즘은 소년체전으로 통합되었지만, 당시 초등부가 출전하는 '꿈나무 체전'에 부산 대표로 계주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경남 최대 인라인 동호회를 운영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 만든 동호회 카페는 나중에 회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어요. 생각해 보면 유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왔네요. (웃음)

**Q. 부산광역시의회사회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과 관련된 행사에 지원을 이어오셨다고요?**

ICN 국제 피트니스 부산대회 심사위원 및 후원사로 활동했으며, 주로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MMA'라고 하는 종합 격투기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식회원종목단체가 아니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회 개최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팀MAD'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MMA팀이 있는데요. 소속 선수들의 경우 대회가 언제 개최될지 몰라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대표 종합격투기대회인 GFC 챔피언십의 메인 후원사로 10회째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두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Q. 평소 즐겨하는 운동, 혹은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출퇴근 시 걷기 및 계단 타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쉬면서는 고정식 자전거를 활용하거나 탁구나 골프도 간간히 즐깁니다. 최근 광안대교를 달리는 후원대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Q. 부산체육인들에게 여름철 건강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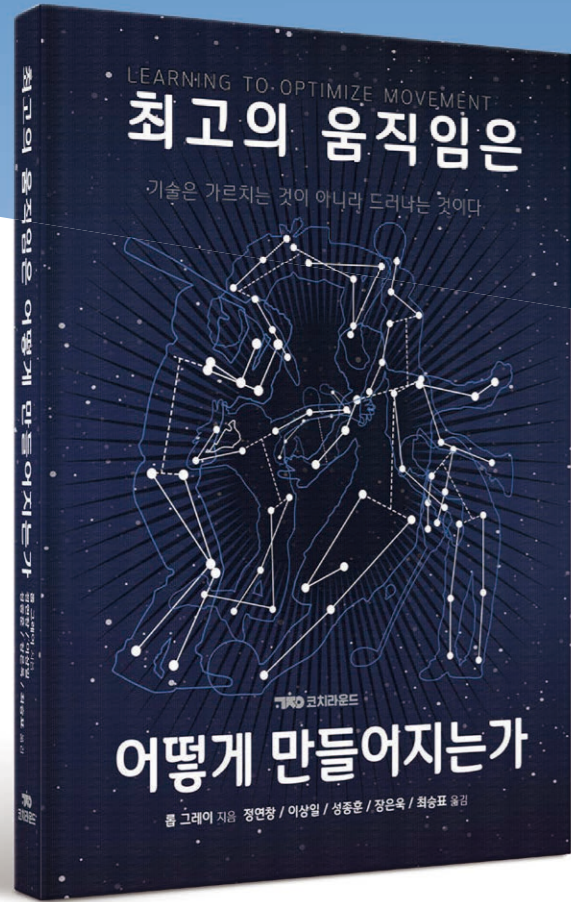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여름철에는 계절성 감염병인 식중독이나 장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 씻기가 많은 질병을 예방해 주니, 식사 전이나 식사 준비 중 손을 꼭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열사병 등에 주의하시고 야외 활동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서 활동 계획 및 부산체육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문체육 관련 대회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일반시민들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부산시에서 더욱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시민들의 체육활동, 즉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체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와 대회가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 GFC는 부산을 베이스로 하는 격투기 단체를 만들어 선수들의 꿈을 실현해 주자는 취지로 만든 단체이다.



# 「최고의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자 롱 그레이 / 출판사 코치라운드

기술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다.

좋은 기술은 하나의 움직임 솔루션을 반복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움직임 솔루션을 찾는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능력이 '좋은 기술'이다.

## “ 기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

“공을 끝까지 봐!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

많은 종목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하는 주문이다.

올바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자.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주의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원이다. 또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자원이다.

주의력은 퍼포먼스를 제대로 발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

주의력을 '엉뚱한 곳'에 쏟으면 순식간에 최고의 퍼포먼스가 평범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올바른 대상'으로 주의를 옮기기만 해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풋볼 경기에서 수비수는 어떤 방식으로 상대 공격수에게 강한 태클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야구 경기에서 플라이볼을 잡기 위해 달리는 외야수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의 속도로 달리면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프리즈비를 잡기 위해 뇌에서 계산하고, 예측하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할까? 이 모든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인간보다 프리즈비를 훨씬 잘 잡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움직임의 경제성을 고려하게 되면 코치가 연습을 디자인하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 이는 운동 학습에서 '오버러닝(overlearning)'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오버러닝은 선수의 퍼포먼스 결과는 정체되어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습은 계속해서 하지만 선수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거나 정확해지지 않는다. 공을 더 강하게 때리거나 멀리 보내지도 못한다. 하지만 선수는 계속 무언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선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같은 움직임 솔루션을 만든다. 근육 수축과 산소 소비를 적게 하며 움직임 솔루션을 만든다. 움직임은 점점 경제적으로 변한다.

코치들은 올바른 동작이나 완벽한 폼을 강조하며 선수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선수 역시 완벽한 폼을 위해 연습을 반복시키는 처방적 교습 방식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연습은 경기로의 전이를 위한 최고의 조건은 아니라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코치의 과제는 명확하다. 선수의 좋은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 올바른 동작이나 완벽한 폼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선수가 다양한 조건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안티취약성(anti-fragile)을 갖출 수 있다.

저자는 기존 출간한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에 이어 '최고의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통해 끊임없이 '움직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코칭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 이론으로 분석하고, 선수 스스로 최고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도록 코칭 설계 방법 등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 BSC SPORTS NEWS

Busan Sports Council

## 제19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구·군 어르신 동호인 1,50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6월 3일(월) 부산 어르신 동호인들의 축제 '제19회 어르신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어르신체육대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 등 8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16개 구·군체육회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국학기공 등 9개 종목을 겨뤘다.

대회 결과 종목별 우승은 국학기공 연제구, 게이트볼 금정구, 그라운드골프 사상구, 배드민턴 사하구, 체조 강서구, 축구 해운대구, 파크골프 북구·강서구, 탁구 북구, 테니스 해운대구가 각각 차지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어르신 동호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부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에 더욱 나아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스포츠과학센터-동의대학교 업무협약



### 부산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협력

5월 13일(월) 부산시체육회관에서 부산스포츠과학센터와 동의대학교 체육진흥단은 부산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산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관련 분야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해 2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사업에 선정돼 5억 8,000만 원 상당의 전문 장비

를, 이어 5억 3,000만 원 상당의 국·시비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의 학생 선수와 실업 선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맞춤형 지원 등 부산 스포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스포츠 생리·역학·심리·측정 등 분야별 박사급 연구진과 측정 요원, 전문 트레이너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선수들에게 과학적인 체력분석 및 개인맞춤형 운동처방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 국학기공 등 6개 종목 종합 2위로 선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5월 30일(금)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선수단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선수단의 성적 보고, 입상 트로피 전달, 종합 입상 단체 및 특별상 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부산선수단은 국학기공·그라운드골프 등 6개 종목에서 종합 2위, 수영·스쿼시 등 4개 종목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여 해당 종목 단체 회

장과 실무자에서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소프트테니스 박기수(1932년생)와 당구 박하자(1937년생)가 최고령 참가자로, 수영 정선율(2017년생)과 박주예(2016년생)가 최연소 참가자로 선정돼 부상을 받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종목별로 고루 좋은 성적을 거둔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부산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통해 스포츠 도시 부산의 면모를 드높인 대회였다.”고 말했다.

## 제19회 여성체육대회



### 7개 종목, 1,200여 명 참가

부산 여성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9회 여성체육대회가 지난 6월 5일(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여성체육대회는 부산 여성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주최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부산시체육회관 월계관 등 5개소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국학기공, 탁구, 테니스, 볼링, 배

구, 체조)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탁구, 배드민턴) 1,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아름다운 경쟁과 건강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축제가 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오늘 이 대회가 여성 동호인들의 따뜻한 정과 건강한 활력으로 모두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2024년 제2기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체육대학

중구체육회는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중구 구민들을 위한 '2024년 제2기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구민들의 수요와 선호도에 맞추어 생활체육교실은 골프 외 3종목, 장수체육대학은 다이어트체조 외 3종목을 선정하여 진행 중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높은 출석률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서구볼링협회장배 대회

부산광역시서구볼링협회 주관으로 '부산광역시서구볼링협회장배 대회'가 5월 19일(일) 서구 소재 ABC볼링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서구볼링협회 동호인 6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기량을 발휘하였고 친선과 우의를 다지며 화합의 장으로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 부산진구체육회 제33회 부산진구청장배 및 부산진구협회장배 춘계대회

5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강서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총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3회 부산진구청장배 및 부산진구협회장배 춘계대회'를 개최하였다. 푸르른 신록의 계절인 5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대회는 사고 없이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처럼 진행되었고 참가한 모두가 승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대회 결과] 1위 개포클럽 / 2위 개성클럽 / 3위 백양클럽



### 동래구체육회 제23회 동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태권도 동호인의 축제인 '제23회 동래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5월 25일(토)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태권도 대중화에 기여하며 구민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명량한 사회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어, 총 5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미래 꿈나무 선수들이 실력과 경험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 동구체육회 동구민 운동회

동구체육회 주최·주관으로 매년 동구민의 날(5월 1일)을 기념하여, 동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5월 19일(일) '동구민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부산 동구는 국제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새로운 도시브랜드 "하버시티 동구" 선포하기도 했다. 동구민 운동회는 12개 동 2,0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다.



### 영도구체육회 제44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5월 12일(금) 체육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구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44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태권도 식전공연, 체육진흥유공자 표창, 체육인재 육성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이번 대회는 15개 종목(검도·게이트볼·당구·배구·배드민턴·볼링·야구·소프트테니스·족구·축구·탁구·태권도·테니스·파크골프·스쿼시)에 2,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 남구체육회 이기대 갈맷길과 함께하는 제9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배 영남권 동호인 테니스대회

5월 25일(토) 백운포체육공원 테니스장 포함 5개소에서 '이기대 갈맷길과 함께하는 제9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배 영남권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강미나 부구청장과 정춘식 남구청체육회장도 참석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 북구체육회 제19회 북구청장배 직장인 축구대회

5월 19일(일)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에서 '제19회 북구청장배 직장인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북구 관내 직장 동호회 9개 팀이 참석하였으며, 직장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승부를 겨루었다. 대회는 선수들의 사고나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해운대구체육회 제6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5월 19일(일) 원동강변 축구전용구장에서 '제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해운대구 축구 동호인 27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경기는 J5부, J6부, 60대부, 실버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축구 동호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고, 동호인들은 그동안 맞춰왔던 팀워크와 갈고닦은 개인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 사하구체육회 제18회 사하구축구협회장배 초청 축구대회

5월 26일(일) 을숙도 A 축구장에서 '제18회 사하구축구협회장배 초청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축구협회에 등록된 35개 팀 300여 명이 참여하여 통합, 부산 J-5, 부산 60대, 사하 J-6 4개의 부서로 대회가 진행됐다.

[대회 결과 우승] 통합부: 부산중앙 / 부산 J-5: 재미사마  
부산 60대: 증산A / 부산 J-6: 여울



## 연제구체육회 2024년 제27회 연제구청장기 대회 7종목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연제구청장기 대회 7종목을 개최하였다. 축구 및 족구대회(5월 12일)를 시작으로, 파크골프대회(13일), 탁구 및 배구대회(19일), 테니스대회(26일)가 각각 진행되었다. 종목별로 200~600여 명이 넘는 동호인이 참석하며 활기를 가득 채웠다. 또한 올해 처음 개최된 주짓수대회(18일)는 첫 대회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주짓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금정구체육회 2024년 여성특화체육교실(풋살)

지난 5월 금정구체육회는 관내 여성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2024년 여성특화체육교실(풋살)'을 개강하였다. 금정구 관내 성인 여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교실은 7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기초부터 심화과정, 개인 및 단체 기술훈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들은 풋살 실력 향상과 함께 건강한 신체 및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서구체육회 2024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

'2024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를 5월 26일(일) 명지다목적인조잔디운동장 외 10개소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강서구체육회 회원단체 11종목 동호인 1,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호인 상호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로 단위클럽 육성 발전과 강서체육인의 신뢰와 소통·화합으로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와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의 선도에 강서구체육회가 함께 하며 체육대회를 통한 강서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체력증진에 기여하였다.



## 사상구체육회 2024 사상구청장배 축구·게이트볼·야구·족구·테니스·그라운드골프 대회

사상구체육회는 5월 26일(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구청장배 6개 종목(축구·게이트볼·야구·족구·테니스·그라운드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1개 클럽 1,065명 사상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각 종목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마련 및 체력증진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은 경기 실력을 겨루는 것은 물론,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서로의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기장군체육회 제23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 기장군 선수단 A그룹 우승

5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진행된 제23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에 기장군 선수단이 참가해 A그룹 우승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128개 팀 1,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기장군 선수단은 종합 우승을 차지해 제1회 대한게이트볼협회장배 전국 최강자전(11월 개최)에 참가 자격을 부여받고 출전할 예정이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5월 25(토)일과 27일(일)에 신설프로그램 라인댄스 B반 개설해 홍보 무료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개설한 라인댄스 A반의 많은 호응으로 추가 개설한 반에 다수의 부산 시민들이 참여하여 무료 강습회를 즐겼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강습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오후 시간에 즐길 만한 댄스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마침 원하는 시간에 개설이 되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즐거워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은 물론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설프로그램 라인댄스B반 개설

##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구민(성인)을 대상으로 파트너 없이 다 같이 줄을 맞춰 방향 전환하며 기본스텝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차밍&라인댄스)을 개설하였다.

6월부터 진행된 차밍&라인댄스반은 성별·연령 제한 없이 다양한 음악으로 리듬감을 향상시키며, 신체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형교정, 올바른 자세, 체력 향상, 골다공증 예방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풍성한 신규프로그램 개설로 지역 주민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다.

문의) 051-365-7070

신규프로그램 차밍&라인댄스반(11시부) 개설

**6월 3일(월) 개강!**

- ♥ 매력적인 S라인으로 자신감UP
- ♥ 기본스텝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건강댄스
- ♥ 다양한 음악으로 리듬감 향상
- ♥ 신체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 ♥ 체형교정, 올바른 자세, 체력향상 골다공증 예방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일정	강습료
차밍&라인댄스	11:00 ~ 11:50	30명	주5회	57,000



2024년 강서구청장배 체육대회 개최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지난 5월 26일(일),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중 수영, 배구 두 종목이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150여 명의 동호인이 모인 가운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또한 김형찬 구청장은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 영도국민체육센터

지난 4월부터 영도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클볼 수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클볼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라켓스포츠허브를 경험해 본 이들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스텝만 익혀도 피클볼 운동의 반을 배웠다고 할 정도로 쉬운 스포츠다. 피클볼의 가장 큰 특징은 투바운드룰이 있다는 점과 서브를 넣는 쪽에서만 득점이 가능하고, 득점에 실패하면 점수 변동없이 상대방에게 서브권이 넘어간다는 점이 있다. 테니스코트의 3분의 1의 공간에서 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라켓스포츠허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인기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핫하게 뜨고 있는 인기종목, 피클볼!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월 3일(목) 제19회 어르신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시내 16개 구군테니스협회에서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장으로, 이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돋보였다.

5월 18일(토) 2024년 춘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금배A, 금배B, 동배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400여 명의 동호인들의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결과]**

- 우승(남자부): 금배A조-에이스클럽
- 금배B조-마스터즈(청)클럽
- 동배조-볼나비(청)클럽

## 제19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2024년 춘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난 5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2일 동안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광역시에서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주최,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820여 명(선수 700여 명, 임원·심판·운영요원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선수들은 대회 하루 전과 대회를 마친 후 부산의 관광명소를 찾아보며 부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귀가하였다.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5월 24(금)부터 28일(화)까지 진행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산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선수단이 출전해 여자15세이하 부 단체전 3위에 입상하였다.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선수단의 우수한 성적을 축하하며, 고생한 선수단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바란다.

올바른 장례문화의 시작

# (주)시민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 및 관습을 타파하고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꽃장식   분향소   접객실   내실   상주휴게실   상담실   주차장   하늘정원

### ☑ 계열사 장례식장

- (주)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051)896-4444  
BUSAN PAIK HOSPITAL FUNERAL HALL
-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051)893-4444  
HAEUNDAE PAIK HOSPITAL FUNERAL HALL

### ☑ 장례전문인력

- 전문 장례지도사
- 전문 이송단
- 인력 도우미
- 장례관련 일체(개장등)

소중한 분이셨다면 특별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 24시간 무료상담 및 부산관내 무료이송\*

(주)시민장례식장 | 24시간 무료상담 |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주)시민장례식장

박원욱병원  
PARK WEON WOOK HOSPITAL

# 척추·관절



| 척추·관절 | 척추측만증 | 척추 재수술 | 스포츠재활  
| 통증·도수치료 | 뇌·신경질환 | 양방향척추내시경

☎ 대표전화 | 1544-758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4  
광안(박원욱병원) 5번 출구 앞

박원욱병원

www.parkspine.co.kr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건설기업

동원개발그룹은 주거문화, 금융, 레저산업 및 수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입니다.

# DW

Since 1975년 | 전국 167차 사업장 87,000세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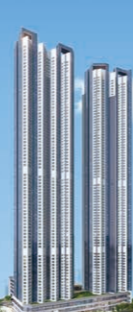
49년 쉬지 않고 달려온 신용제일의 기업 동원개발!  
동원개발이 지으면 명품이 됩니다!



SKY.V 부산북항



SKY.V 센텀시티



SKY.V 우정역신

**부산 냉정역 비스타동원** 분양 문의 051)256-4500

**2월 29일 OPEN**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분양 문의 052)922-5000

**4월 OPEN 예정**

시공능력평가 2023년 전국 31위, 부울경 1위! 초우량 1군 종합건설기업!

**AAA**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AAA  
• 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AA+  
•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AA

전국 87,000여 세대 공급

부채비율 39.8% 단탄환 1군건설사 (2022년)

48년 연속 흑자기업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코스닥상장 우량기업 (1994년 상장)

국내 최초 주택사업분야 금탑산업훈장 (1995년)

**DW 동원개발**

SKY.V | 비스타동원 | 동원로얄듀크 | 동원시티비스타

대표이사 회장 장복만

동원개발그룹

동명·기장·양산 | 고령이하 여성비율 초우량 | 연근해·일양어업

DW 동원로얄컨트리클럽 | DW 동원제일저축은행 | DW 동원해사방 | DW 동원문화장학재단

DIST 동아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동원중학교 | 동원고등학교 | 울산고등학교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 스포츠과학센터  
CENTER FOR SPORTS SCIENCE IN BUSAN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료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테스트 제공

###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 KSP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특특**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특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시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딱풀아, 안녕!

이거는 엄마, 이거는 아빠,  
그리고 이건 딱풀이예요!  
딱풀이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언니가 초등학교가 되면  
딱풀이를 잃어서서 안아주고 달래줄게!

동생을 기다리는 윤서의 순수한 마음,  
그 착하고 예쁜 마음이 있어  
우리의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과 두근거림,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BNK부산은행**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본 광고는 BNK해운대어린이집에 다니는 윤서와 동생 딱풀이(태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NK부산은행은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잘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림대회'를 실시하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딱풀이를 그려준 윤서는 곧 찾아올 동생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잘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림대회 관련 영상은 BNK부산은행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